

논리
9강

사실추론1
평면

사실추론 유형의 사례

☞ [단국대] 2017 모의

[가]에서 찾은 단어를 중심으로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설명하고, [다]의 주장을 요약 설명하시오. (400자)

☞ [경기대] 2018 모의

(가)의 관점에서 (나)의 제도를 비판해 보고,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과 같이 판시한 이유를 (다)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시오. (750±50자)

☞ [광운대] 2018 모의

(가)의 지점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어떤 사회적 문제 때문인지를 밝히고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나)의 두 입장에서 각각 찾아 설명한 후, (나)를 활용하여 (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시오. (750±50자)

☞ [덕성여대] 2018 모의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사회보장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50자 내외)

☞ [서강대] 2017

[가]~[마]에 기반하여 [바]의 상황이 일어난 원인을 추론하여 서술하시오. [사]에서 제시된 사회 정의에 관한 두 관점을 토대로 [바]에서 언급된 정책의 정당성을 해당국 국민의 입장에서 논술하시오 (800~1,000자)

☞ [서울여대] 2018 모의

언론이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대중에게 제시할 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제시문 (가), (나)의 내용에 근거해 논의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가), (나), (다)와 <표1>을 참고해 [그림1]과 [그림2]의 자료는 각각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비교·서술하시오.

☞ [성균관대] 2017

<자료 1>은 미취학의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 (A)와 (B)의 월간 소득 및 지출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료 2>는 이 두 가구에서 여성배우자의 삶의 질을 조사한 것이다. (가)와 (나)가 <자료 1>의 어느 가구의 것인지 추론하되, 가능한 추론 모두를 [문제 1]의 두 입장에 근거해서 정당화하시오.

☞ [숙명여대] 2018 모의

<가>에 언급된 인공지능(AI)의 능력을 참조하여 <나>의 <표>를 해석하고, <다>에 기술된 법관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시오. (1,000자)

논술의 꽃, 추론

- (가) 남북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의했다.
- (나) 남북은 다가오는 여름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다) 북한은 그동안 평화 합의를 깨고 남한을 적대한 적이 있다.

[보기 1] (가)를 바탕으로 (나)의 회담의 내용을 분석하시오.

[보기 2] (다)를 바탕으로 (가)의 합의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보기 1]은 남북이 평화를 약속한 상황을 전제로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해 분석하는 문제이다. 남북은 평화를 지향하는 상태이니 정상회담에서도 안정적 평화를 위한 논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 2]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북한이 그동안 평화 합의를 어긴 적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 볼 때는 남북의 평화 합의도 깨질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합의라고 볼 것이다. 두 문제 모두 남북의 평화 합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 다른 논의가 펼쳐졌다.

주어진 것(시험지 안의 내용, 교과 상식)을 바탕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우리가 밝혀야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판단해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론이다. 논리학 교과서를 보면 추론에는 정언적 삼단논법, 생략 삼단논법, 가언적 삼단논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논리학의 세밀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입 논술을 위한 도구로서 '최소한의 논리'를 배워 익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전형적인 요구사항, 즉 문제 유형으로서 존재하는 '연역추론'이다. 물론, 논술에서 '귀납추론'도 요구되지만, 주로 제시문을 요약하는 논제로서 간접적으로 요구된다. 우리가 문제 유형으로서 다루는 추론 문제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연역추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연역추론은 쉽게 말하면, '맞다/옳바르다고 여겨지는 생각'을 기준으로 특정 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사고 유형으로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적용 유형'이라고 부를 것이다. 특정 대상을 특정 이론에 적용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용 유형은 크게 단순 추론과 복합 추론으로 나뉘고, 단순 추론은 다시 사실추론과 가치추론으로 나뉜다. 복합 추론은 단순 추론의 원리를 활용하여 조금 더 복잡한 조건과 상황에서 종합적인 추론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사실추론은 적용 유형 학습의 출발점이자, 근간이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강의를 꼼꼼히 숙달시킨다면, 이후에 배우는 모든 유형들을 보다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추론] 개념

사실추론은 보통 '설명 유형, 설명하기 유형'이라고 불린다. 주로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하십시오"와 같은 표현으로 요구되는 논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이러한 유형들을 '설명하기 유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우선, 사실추론을 가리키는 용어는 '설명하십시오' 말고도 많고, '설명하라'고 요구된 경우에도 사실추론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공자에 대해 설명하고,"는 어떤 유형인가? 설명하기 유형인가? 아니다. 그냥 요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Fact)에 대한 연역추론'이라는 의미로 '사실추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사실추론은 기본적으로 '연역추론'이다. 앞으로 우리가 '적용 유형'으로 다룰 후반부의 모든 유형들은 대부분 넓은 의미의 연역추론이라고 보면 된다. "A를 기준으로 B를 C하라"는 식으로 파악되는 것이 모두 연역추론이라는 것이다. 연역추론이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편적 원리를 품은 대전제를 바탕으로 원리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해 판단하는 모든 추론을 말한다. 이론을 주고, 그 이론에 맞춰서 구체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연역추론 중에서 Fact에 대한 연역추론적 탐구를 하는 것이 바로 사실추론인 것이고, 여기서 '사실'이란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에서 쓰이는 '사실'이라고 보면 된다.

“A의 입장에서 B를 C하십시오.”

A	기준	대전제	보편 원리	F(x)	교과 개념
B	대상	소전제	관련 사실	X	문제 조건
정답	추론	결론	적용 결론	Y	정답

[사실추론] 독해법

1. 기준 제시문을 보편적 이론으로 정리한다.

제시문을 독해하기 앞서 먼저 어떤 제시문이 기준이고, 어떤 대상인지 파악해야 한다. 기준 제시문부터 읽고 보편적 명제로 정리해야 대상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되, 교과적 개념어로 구성된 포괄적인 보편 명제($P \rightarrow Q$)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기준의 이론이 대상을 포괄할 수 없으면 논리가 깨지기 때문이다.

2. 기준의 명제를 중심으로 대상의 의미를 분석하라.

기준의 명제가 정리됐으면, 이를 중심으로 대상 제시문을 독해하면 된다. 이때, 대상 제시문을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서 정리된 명제($P \rightarrow Q$)에 대응하는 내용들만을 추려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 명제에 대응하는 내용들이 바로 연역추론의 소전제들이고, 소전제가 아닌 대상 제시문의 내용들은 '군더더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상 제시문의 자체적인 주제가 소전제로 선택되지 않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론 명제와 관련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3. 정리된 소전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추론하라.

이제 정리된 소전제(Fact)가 어떤 의미(Meaning)가 있는지 주어진 이론에 비추어 추론하면 된다. 소전제(들)은 이론 명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 소전제를 이론 명제에 비춰 보면, 특정한 추론이 결과값으로 도출되는데, 이 내용이 '적용(해석)' 내용이 된다. 그리고 이 적용 부분의 결론부가 곧 논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될 것이다.

[사실추론] 논리평면

1. 원인 분석: 이론(전제-결론)과 함께 결론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 제시

이론을 통해서 대상으로 주어진 결과적 현상이 갖는 원인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경우이다. 참이라고 알려진 이론을 제시하고, 이 이론의 명제($P \rightarrow Q$)를 기준으로 대상으로 주어진 구체적 상황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P	Q
?	q

2. 결과 예측: 이론(전제-결론)과 함께 전제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 제시

이론을 통해서 대상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르게 될 결과가 무엇이 될지 추론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도 역시 '참'이라고 알려진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나타나게 될 구체적인 결과를 분석한다.

P	Q
p	?

3. 의미 해석: 이론(전제-결론)과 함께 전제-결론 모두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 제시

이론을 통해서 대상으로 주어진 상황(Fact)이 갖는 의미(Meaning)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으로 주어진 내용들을 적용시켜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이다.

P	Q
p	q

	전제	결론
기준	성실과 열정	목표 성취
대상	논술을 매일 연구	논술 합격

[사실추론] 표준전개

A [이론 소개 후 적용] 공통 기준, 이론이 먼저 제시된 경우, 이론이 복잡한 경우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핵심	기준 제시문의 결론(주장)을 압축적으로 제시
	기준-상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유나 부연)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주장	기준에 대상을 적용한 결론적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
	대상-핵심	대상의 핵심(소전제)를 간명하게 제시
	대상-상술	대상의 핵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속성을 제시
	적용-핵심	소전제가 갖는 의미를 개념적으로 해석
	적용-상술	적용 추론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충

B [대상 소개 후 분석] 공통 소전제, 대상이 먼저 제시된 경우, 대상이 복잡한 경우

문단	기능	내용
1	대상-핵심	대상의 핵심인 소전제를 간명하게 제시
	대상-상술	소전제를 중심으로 대상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충
2	주장	기준 명제에 비춰 볼 때 대상이 갖는 결론적 의미를 제시
	기준-핵심	추론에 이론으로 적용된 명제를 개념적으로 제시
	기준-상술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유, 부연 중심)을 보충적으로 제시
	적용-핵심	소전제를 주어(부)로 하고, 적용된 결론을 서술어(부)로 하는 적용 문장 제시
	적용-상술	적용 추론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충

동국대 2018학년도 인문1 기출 3번

- ④ [대]에 나타난 관습이 [가]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으로, [나]의 관점에서는 ‘비도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 (20점) 그리고 [라]에서 등장하는 ‘사회 개선의 꿈’에 대해 [가]와 [나]의 쟁점과 연결하여 논하되, [가]의 윤리관이 갖는 난점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오. (20점) <21~23 줄 (630~690자)>

[가]

윤리 상대주의는 도덕적인 진리가 문화·계층·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서로 다른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도덕규범이 존재하므로, 한 사회에서 무엇이 옳은가는 그 사회의 도덕규범에 의존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의 규칙이 다른 사회의 그것보다 더 좋거나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도덕적 진리가 없으므로, 옳고 그름은 관점의 문제이며 그 관점은 문화·계층·개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듯 윤리 상대주의는 문화가 상대적이듯이 윤리 규범도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는 관점을 취한다. 어떤 사회에서 적용되는 행위 규칙의 타당성은 해당 문화의 승인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이 견해의 핵심이다. 결국 윤리란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표준이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 개인 또는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준과 규칙을 따르는 문제로 본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윤리 보편주의는 문화적 특수성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있다고 믿는 입장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것은 모든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다. 이러한 도덕규범은 인간의 이성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편성을 지닌다. 인간은 비록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가 서로 다를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 보편주의에 따르면 도덕규범은 특정 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일 수 있다. 이 입장은, 문화권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도덕규범보다 그 규범의 이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 등과 같은 가치가 지니는 보편성은 모든 인간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대]

발칸 반도 동남부에 사는 트라키아 부족의 풍속은 이러하다. 이 부족의 남자는 모두 많은 아내를 거느린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떤 아내가 죽은 남편으로부터 생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아내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죽은 남편의 친구들도 편을 나누어 논쟁을 벌인다. 그리고 평결 결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내로 선정되면, 그 아내는 모든 부족민에게서 찬사를 받으며 살해되어 남편과 함께 매장된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래]

저는 오늘 우리 역사에서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행진으로 기억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구렁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시다.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애라는 식탁 앞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미시시피주도 언젠가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산을 깎아 희망이라는 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형제애라는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 ☞ [대]에 나타난 관습이 [가]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으로, [나]의 관점에서는 ‘비도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각각 서술하시오.(20점) 그리고 [라]에서 등장하는 ‘사회 개선의 꿈’에 대해 [가]와 [나]의 쟁점과 연결하여 논하되, [가]의 윤리관이 갖는 난점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오.(20점) <21~23줄 (630~690자)>

[독해]

- (가) 윤리 상대주의: 보편적 윤리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그 사회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윤리이다.
- (나) 윤리 보편주의: 모든 인간 사회를 관통하는 보편적 윤리 법칙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윤리관이다.
- (다) 트라키아 부족의 풍속: 남편이 죽으면 가장 많이 사랑 받은 아내가 살해되어 함께 매장된다.
- (라) 사회 개선의 꿈: 노예와 주인의 구별이 없고, 인종적 차별도 없는 자유와 정의가 가득한 사회

[논리평면] 사실추론

	전제	결론
(가)	그 사회의 규칙을 따르면	도덕적이다
(다)	트라키아 풍속에 따라서 살해	도덕적이다

	전제	결론
(나)	보편적 윤리 법칙에 따르면	도덕적이다
(다)	트라키아 풍속에 따라서 살해	비도덕적이다

	전제	결론
(가)	그 사회의 규칙을 따르면	도덕적이다
(라)	인종 차별이 없는 사회를 갈망	도덕성 인정받기 곤란

	전제	결론
(나)	보편적 윤리 법칙에 따르면	도덕적이다
(라)	인종 차별 없는 사회 갈망	도덕적인 꿈

[예시답안] 684자

문단	기능	내용
1-1	대상-핵심	(다)에 나타난 트라키아 부족은 남편이 죽으면 논쟁을 거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과 함께 매장한다.
	대상-상술	

1-2	주장	이러한 풍속은 (가)에 따르면 도덕적인 풍속이다.
	기준-핵심	(가)는 윤리 상대주의를 주장하며 그 사회에 속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곧 도덕적인 일이고, 사회의 특수성을 넘어서는 보편적 도덕 규칙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준-상술	
	적용-핵심	그러므로 트라키아 부족은 자신들의 규칙에 의거해 전통을 행한 것으로서 윤리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 있다.
적용-상술		

1-3	주장	반면 이러한 풍속에 대해 (나)는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기준-핵심	(나)는 윤리 보편주의를 주장하며 모든 인간 사회를 관통하는 보편적 윤리 법칙은 존재하고, 이에 따를 때 도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준-상술	
	적용-핵심	이에 따르면 트라키아 부족의 풍속은 사랑받은 것밖에 없는 무고한 아내를 살해하는 것으로서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비도덕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적용-상술		

문단	기능	내용
2-1	대상-핵심	(라)에는 인종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 사회를 갈망하는 '사회 개선의 꿈'이 등장하고 있다.
	대상-상술	

2-2	주장	이는 (나)에 따르면 윤리적으로 타당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다.
	기준-핵심	
	기준-상술	
	적용-핵심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함을 소망한다는 것은 상식적 차원에서 타당한 갈망이기 때문이다.
적용-상술		

2-3	주장	반면 (라)의 소망은 (가)의 입장에서 보면 윤리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기준-핵심	
	기준-상술	
	적용-핵심	(라)의 '사회 개선의 꿈'은 당시 사회의 관습적 규칙에 반하는 특이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적용-상술		

[대학 출제의도]

본 문항은, 특정 주제에 관한 지문들에 나타난 여러 생각을 수험생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연결하고 추론하여 해당 물음에 답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 평가는 다음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 (i) 특정 쟁점에 대하여 서로 대립하는 두 입장의 핵심을 주관이 배제된 중립적 태도에서 올바르게 이해한 뒤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가?
- (ii) 해당 쟁점에 대하여 한 특정한 입장이 갖는 난점을 명시할 목적으로, 다른 제시문에 나타난 요점으로부터 그 요점 자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나 조건을 추론하여 명시할 수 있는가?

[대학 문항해설]

< 제시문 분석 - 제시문에서 추출하여 인용함 >

제시문	핵심 개념 또는 그 定意	중심 내용
[가]	윤리상대주의: “도덕적인 진리가 문화·계층·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입장”	“어떤 사회에서 적용되는 행위 규칙의 타당성은 해당 문화의 승인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이 견해의 핵심이다.”
[나]	윤리 보편주의: “문화적 특수성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있다고 믿는 입장”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 등과 같은 가치가 지니는 보편성은 모든 인간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	부족의 풍습	트라키아 부족의 순장제 관습
[라]	사회 개선의 꿈	인종차별 금지, 자유, 정의, 인격, 희망, 형제애

< 문항 해설 >

- 출제 의도 (i) 특정 쟁점에 대하여 서로 대립하는 두 입장의 핵심을 주관이 배제된 중립적 태도에서 올바르게 이해한 뒤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가?

- (1) 윤리 상대주의와 윤리 보편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둘 사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그 둘이 서로 대립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제시문 (다)에 나타난 트라키아 부족의 순장제 풍습을 이해하고, 그 풍습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각각의 두 관점에서 수행한 후, 그 판단의 이유를 서술한다. 여기에서는 중립적 입장의 견지가 중요하다.

- 출제 의도 (ii) 해당 쟁점에 대하여 한 특정한 입장이 갖는 난점을 명시할 목적으로, 다른 제시문에 나타난 요점으로부터 그 요점 자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나 조건을 추론하여 명시할 수 있는가?

- (3) 윤리 상대주의의 난점을 주어진 지문 (가)와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즉 (라)에 나타난 연설의 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나타난 사회 개선의 꿈이 무엇인지를 위 쟁점과 연결시킨 후, 사회 개선의 꿈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나 조건을 추론하여 서술한다. (사실상 윤리 상대주의의 난점은 제시문 (가)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

- 이제 (라)의 요지는 사회 개선의 꿈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 개선의 꿈은 어떤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더 좋거나 옳다는 도덕 판단을 전제로 하거나 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나아가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판단 기준이나 근거가 존재하고 또한 인식되어야 한다. 윤리 상대주의는 이 점을 잘 다루거나 설명하기가 힘들다. 이 요점을 명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시답안 참조.)

[대학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문제 3</p>	<p>1. 윤리 상대주의와 윤리 보편주의의 쟁점에 대하여 특정 관습에 관한 도덕적 판단을 수험생의 주관에 배제된 각각의 관점으로부터 적절하게 이해하여 서술하는가?</p> <p>1-1 [다] 트라키아 부족의 순장제 관습이 [가] 윤리 상대주의 관점에서 ‘도덕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이유를 명시하는가?</p> <p>1-2 [다] 트라키아 부족의 순장제 관습이 [나] 윤리 보편주의 관점에서 ‘비도덕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이유를 명시하는가?</p> <p>2. [라]에 등장하는 ‘사회 개선을 위한 꿈’을 갖고 추구하기 위하여 먼저 성립해야 하는 전제나 조건을 적절하게 추론하는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 상대주의의 난점을 적시하는가?</p> <p>2-1 ‘사회 개선을 위한 꿈’을 갖고 추구하기 위하여 먼저 성립해야 하는 전제나 조건은, 제시문 [가]에 암시되어 있듯이, 어떤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더 좋거나 옳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공통적인 ‘기준’, ‘표준’, 또는 ‘원리’에 관여한다. 수험생이 이 점을 파악하고 있는가?</p> <p>2-2 그런데 이른바 윤리 보편주의는 그러한 공통적 기준이나 표준의 근거가 (적어도 몇몇의) 보편적인 도덕 규범에 놓여있다고 봄으로써 위 문제를 잘 다루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윤리 상대주의는, 어떤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더 좋거나 옳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공통적 기준이나 표준의 문제를 잘 다루거나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 입장에서는 간문화적인 공통적 기준이 원리상 존재할 수 없고, 설령 그 기준이 존재하다고 해도 그 기준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험생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점을 추론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이 점이 본 문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p> <p>※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문항과 답안에서 ‘도덕적’과 ‘윤리적’은 동의어로 간주한다. · 2-1과 2-2의 경우 해답의 내용에 상당하거나 정합하는 몇몇 대안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예시답안 참조) <table border="1" data-bbox="252 1473 1337 1821"> <thead> <tr> <th>상</th> <th>S</th> <th>위 요건 1-1, 1-2, 2-1, 2-2를 완전히 충족하면서 글이 명확하고 매끄럽게 서술된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td> <th>A</th> <td>위 요건 1-1, 1-2, 2-1, 2-2를 충족했지만 글의 명확성과 논리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td> </tr> <tr> <th rowspan="3">중</th> <th>B</th> <td>위 요건 1-1, 1-2를 충족시키고 2-1, 2-2를 정확하게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2-1과 2-2의 취지에 부합하거나 연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서술한 경우</td> </tr> <tr> <th>C</th> <td>위 요건 1-1, 1-2를 충족시키고 2-1, 2-2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2-1과 2-2를 자의적인 방식에서라도 정합적으로 서술한 경우</td> </tr> <tr> <th>D</th> <td>위 요건 1-1, 1-2, 2-1, 2-2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임의대로 서술한 경우</td> </tr> <tr> <th rowspan="2">하</th> <th>E</th> <td>물음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답안을 작성한 경우</td> </tr> <tr> <th>F</th> <td>백지 답안, 분량 미달(절반 이하) 등</td> </tr> </tbody> </table>	상	S	위 요건 1-1, 1-2, 2-1, 2-2를 완전히 충족하면서 글이 명확하고 매끄럽게 서술된 경우		A	위 요건 1-1, 1-2, 2-1, 2-2를 충족했지만 글의 명확성과 논리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	중	B	위 요건 1-1, 1-2를 충족시키고 2-1, 2-2를 정확하게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2-1과 2-2의 취지에 부합하거나 연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서술한 경우	C	위 요건 1-1, 1-2를 충족시키고 2-1, 2-2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2-1과 2-2를 자의적인 방식에서라도 정합적으로 서술한 경우	D	위 요건 1-1, 1-2, 2-1, 2-2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임의대로 서술한 경우	하	E	물음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답안을 작성한 경우	F	백지 답안, 분량 미달(절반 이하) 등	40점
상	S	위 요건 1-1, 1-2, 2-1, 2-2를 완전히 충족하면서 글이 명확하고 매끄럽게 서술된 경우																		
	A	위 요건 1-1, 1-2, 2-1, 2-2를 충족했지만 글의 명확성과 논리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																		
중	B	위 요건 1-1, 1-2를 충족시키고 2-1, 2-2를 정확하게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2-1과 2-2의 취지에 부합하거나 연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서술한 경우																		
	C	위 요건 1-1, 1-2를 충족시키고 2-1, 2-2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2-1과 2-2를 자의적인 방식에서라도 정합적으로 서술한 경우																		
	D	위 요건 1-1, 1-2, 2-1, 2-2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임의대로 서술한 경우																		
하	E	물음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답안을 작성한 경우																		
	F	백지 답안, 분량 미달(절반 이하) 등																		

[대학 예시답안] (678자)

윤리 규범은 특정한 사회나 문화에 의존하여 성립하는 상대적인 것인가 또는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보편적인 것인가? 이 쟁점과 관련하여 ‘윤리 상대주의’와 ‘윤리 보편주의’가 제시된다.

트라키아 부족의 순장제-즉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그의 많은 아내들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내가 살해되어 함께 매장되는 관습-를 고려해 보자. 윤리 상대주의에 따르면 그 관습은 트라키아 부족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에 윤리 보편주의에 따르면 그 관습은 ‘비도덕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을 지닌 모든 존재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를테면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이들은 형제애나 정의와 같은 규범과 가치를 통해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꿈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이 사회가 저 사회보다 좋다(또는 ‘옳다’) 등과 같은 윤리 판단이나 가치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그 같은 판단이나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 내지 근거로서 여러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가치나 규범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윤리 상대주의는 이 점을 잘 다루거나 설명하기가 힘들다. 요컨대 그 관점에서는, 보다 더 이상적인 규범 추구의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2번째 문단,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한 대안적 답안 1>

한편 어떤 이들은 ‘인종차별 금지’, ‘형제애’, ‘정의’와 같은 규범이나 가치의 실현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꿈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같은 꿈의 추구는, 현실과 이상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공통적인 가치나 규범이 있으며 나아가 인간은 이성을 통해 그러한 규범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윤리 상대주의는 이 점을 잘 다룰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다. 요컨대 윤리 상대주의는 규범의 다양성의 근거는 잘 제시하지만, 공통적인 가치나 규범 추구의 근거를 잘 제시하지 못한다.

<2번째 문단,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한 대안적 답안 2>

이제 [리]는 ‘인종차별 금지’, ‘형제애’, ‘정의’와 같은 규범이나 가치의 실현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꿈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러한 꿈은, 여러 사회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나 규범이 개별적인 특정 문화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문화를 넘어서서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윤리 보편주의와 달리 윤리 상대주의는 이 점을 잘 설명할 수 없다.

논리 참고 자료

건국대 인문사회계1 2017학년도 기출 2번

☞ [개]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개]

최근 들어 어떤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인본주의 지리학이 등장하면서 '장소(場所, place)' 개념이 새롭게 부상했다. 이때 장소란 인간이 정서적인 끈을 형성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특정 장소는 다른 곳과 구별되게 만드는 특성인 장소성(場所性)을 지니고 있는데, 장소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사람이 지니는 정서적 유대를 장소애(場所愛)라고 한다.

인본주의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를 인간이 공동체로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으로 보았다. 그는 서울, 뉴욕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보다 집, 고향과 같은 보편적인 장소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중 집을 가장 진정한 장소로 여겼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가족 관계를 통해 나의 집과 남의 집을 구별하는 것처럼 장소의 본질은 내적 경험에 있고, 따라서 장소의 의미는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렐프는 장소와 장소를 경험하는 주체인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긍정적 유대감인 '장소의 정체성'에 주목했다. 그는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경험하는 장소가 점점 훼손되거나 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장소 상실 현상을 '무장소성'이라 명명하며, 장소들이 획일화되어 가는 것과 상품화된 가짜 장소가 등장하는 것을 대표적인 현상으로 들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비슷한 생활 방식을 보이는 여러 국가의 도시들과 순수하게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디즈니랜드 같은 곳은 무장소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BS 수능특강 '독서'

[내]

자본주의 경제는 무한히 반복되는 확대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잉여를 온전히 생산에 재투자한다.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자본주의의 운용 원리는 '수단-목적 합리성'으로, 이것은 최선의 수단을 통해 목적을 성취하고 이를 다시 수단 삼아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잉여를 비생산적으로 소비하는 소모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수단-목적 합리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성장을 위해 유용성과 효용성의 이름으로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성(聖)의 세계, 즉 초월성이나 정서, 도덕을 몰아낸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인간은 유용한 사물이 되고, 인간의 관계도 사물의 관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성에 대한 계산만으로 이루어진 사물들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의 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성장 체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조건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것과 소통하는 체험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권태와 우울에 시달리게 된다. 다만 노동을 하는 순간만은 상실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권태와 우울에 대한 방어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노동하지 않는 순간에 자신도 하나의 유용한 사물로 축소되었음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을 통해 인간은 잃어버린 내면성을 되찾고 인간관계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것은 비생산적이고 무질서한 소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즉 목적을 위해 잉여를 질서 정연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를 아무런 목적 없이 무질서하게 소비해야 한다. 바타유는 이를 '무조건적 소모'라고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의 운용 원리가 '수단-목적 합리성'을 통해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에서 '무조건적 소모'를 통해 잉여를 소모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결국 상실한 내면성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조건적 소모'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소모를 위해서 인간은 유용성을 벗어난 환몽(幻夢)의 세계를 특정의 시·공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전략을 택한다.

환몽의 세계는 유용성의 세계와 대립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조건을 뛰어넘어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낸 세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환몽의 세계를 유용성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전략시킨다. 예를 들어 파리의 아케이드는 황홀경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환몽의 세계의 선구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용성에 환몽의 세계를 덧칠하는 전략으로 내면성을 되살리지 못한다. 이것은 후에 백화점 등으로 발전해 나간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환몽은 유용성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용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수단-목적 합리성'을 통해 확대 재생산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모를 위해 선택한 환몽의 세계마저 유용성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EBS 수능특강 '국어'

[래

내가 얼마나 구박당이에 미운 오리새끼인가를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따위 너절한 게 아니라 원미동 시인(詩人)에 관한 것이니까. 내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해도 솔직히 시가 뭣인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얼추 짐작하기로 그것은 달 밝은 밤이나 파도가 출렁이는 바닷가에서 눈을 착 내리깔고 멋진 말을 몇 마디 내뱉는 것이 아닐까 여기지만 원미동 시인이 하는 것을 보면 매양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우리 동네에는 원미동 시인 말고도 원미동 카수니 원미동 멋쟁이, 원미동 똑똑이 등이 있다. 행복사진관 엄 씨 아저씨가 원미동 카수인데 지난 번 ‘전국노래자랑’ 부천 대회에서 예선에도 못 들고 떨어졌더니 대단한 솜씨는 못 될 것이었다. 소라 엄마가 원미동 멋쟁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안다. 그 보라색 매니큐어와 노랑머리는 소라 엄마뿐이니까. 원미동 똑똑이는, 부끄럽지만 우리 엄마이다. 부끄럽다는 것은 남의 일에 간섭이 심하고 결핍하면 싸움질이나 해 대는 똑똑이는 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원미동 시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다. 썩한 두 눈에 부스스한 머리칼, 사시사철 껌껌 다니는 물들인 군용 점퍼와 희끄무레하게 닳아빠진 낡은 청바지가 밤중에 보면 꼭 몽달귀신 같다고 서울미용실 미용사 경자 언니가 맨 처음 그를 ‘몽달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경자 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좀 경멸하듯이, 어린애 다루듯 함부로 하는 게 보통인데 까닭은 그가 약간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어떻게 살짝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것만은 틀림없었다. 몽달 씨는 무궁화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었다. (중략)

그런 몽달 씨에게 친구가 있다면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었다. 몽달 씨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니까 나보다 스무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이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스물일곱짜리 남자 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슈퍼의 김 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낱겨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 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통명스러워졌다.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가게를 도와 준다고 서울로 가 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뻐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리 공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지리 공상이 지켜워 만날 뚱하던 언니였다. (중략)

큰언니는 경기도 양평으로 시집가서 농사꾼 아내가 되었으니 상관없지만 둘째 언니 이야기는 말하기가 부끄럽다. 둘째 언니는 처음에는 버스 안내양, 그다음에는 소시지 공장의 여공원, 그다음에는 다방에서 일하더니 돈 버는 일에 극성인 성격대로 지금은 구로동 어디에서 스물여섯 살의 처녀가 대폿집을 열고 있다. 언젠가 한번 가 봤더니 키가 멀대같이 큰 남자가 하나뿐인 방에서 옷통을 벗어부친 채 잠들어 있고 언니는 그 옆에서 옆드려 주간지를 뒤적이고 있지 않은가. 그만한 정도로도 나는 일이 되어가는 모양을 알 수 있었다. (중략)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섯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 버린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 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쳐 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 형, 김 형…….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짹 짹 짹 눌러놓았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 질렀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변에 하얗게 질려 버렸다.

“무,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시오.”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 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보니 빛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끼여있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셔츠가 틀림없는 몽달 씨였다. (중략)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다 나왔어요?”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 있었더니 금방 나왔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 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 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짝 다가앉았다.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탄전만 피우고 있었다.

“슬픈 시가 있어. 들어 볼래?”

치, 누가 그때위 시를 듣고 싶어 할 줄 알고 내가 입술을 비죽 내밀거나 말거나 몽달 씨는 기어이 시를 읊고 있었다……. (중략)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았는데도 난 자꾸만 눈물이 내려 하였다. 바보같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바보 같은 몽달 씨…….

-양귀자, 「원미동 시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논제분석]

□ 제시문 (가)와 (나)를 연계하여

제시문들을 연계하라는 요구는 통합하라는 요구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통합하라는 것은 종합하라는 것, 즉 귀납추론을 통해 종합 논지를 추론하라는 것인데, 이는 곧 합집합의 차원에서 논지를 정리하라는 말과 같다. 연계하라는 요구도 이와 비슷하다. 다만, 새로운 논지를 따로 정리하기보다는 각각의 논지를 연결시켜서 적용하라는 것이므로 합집합 차원에서 논지를 연결시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대상과 연동되는 기준의 원리가 여럿 있을 수 있다. 특히나 단일한 논리평면, 즉 단일한 원리를 통한 한 번의 적용 추론으로 주어진 글자수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기준을 여러 개로 나눠서 설정하여 논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문제에서는 1,000자를 하나의 논리평면으로 채우기는 곤란하므로 여러 개로 쪼개서 논증해 볼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제시문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제시문 (라)를 설명하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라고 했다. 이렇게 요구가 세부적으로 특정되었을 때는 그 요구에 맞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작성하는 데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논제가 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와 (나)를 연계한 논지 역시 '나-원미동'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으로 뽑은 논지가 대상에 대한 판단과 연동되지 않는다면, 정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기준과 대상은 언제나 추상-구체로 호응하는 평행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대상이 세부적으로 특정되었을 때는 이에 맞춰 기준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해]

(가) 장소애 - 주관적·개별적인 정서적 경험·가치 → 사라지고 있음 - 무장소성(획일적 상품화) 확대

(나) 자본주의 - 유용성에만 집중(재투자) → 상실감 → 무조건적 소모(비생산적 무질서)로 회복 필요

(라) 상황: 원미동의 자본주의화 - 유용성 중심주의 - 장소애의 축소(무장소성 확대)

결과: 몽달 씨의 시로써 회복

[논리평면] 사실추론 & [예시답안] 987자

1	전제	결론
(가), (나)	장소에 부여하는 정서적 가치가 높으면	장소애가 높다는 것이다
(라)	'나'는 다양한 사람들은 '원미동 00'라고 부르고 있다	원미동에 대한 애착이 높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정서적 가치를 통해 특정 장소에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마음을 '장소애'라고 한다. 저마다의 주관적인 정서적 경험을 중심으로 각 장소들에 애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라)의 '나'는 원미동에 대한 장소애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마을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원미동 시인', '원미동 멋쟁이' 등 마을에 대한 소속성을 강조하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마을을 보다 특별한 장소로 인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전제	결론
(가), (나)	장소애가	현대에 와서 사라져가고 있다 (유용성에만 집중)
(라)	정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정신이	사라져 가고 있다 1) 선욱: 마을을 '지리지 궁상'으로 여기고 서울로 떠남 2) 둘째 언니: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제시문 (가)에 따르면, 장소성이 현대에 와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상품성에 따라서만 장소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무장소성'이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에 나타나는 유용성에만 집중한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나'가 좋아하는 원미동도 최근 장소애가 사라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선욱이 언니는 동네가 '지리지 궁상'이라며 불평하다가 서울로 떠나버렸고, 둘째 언니도 돈에만 전념하며 가리지 않고 일만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로지 유용성만을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마을도 하나의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무장소성을 보여준다.

3	전제	결론
(가), (나)	무장소성으로 인해 생긴 상실감은	무조건적 소모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라)	몽달은 빗에 쫓겨 마을에서 구타를 당하고, 이에 대해 '나'는 안쓰러움을 느낀다	이에 몽달은 '시'를 통해 스스로와 '나'를 회복시킨다

(가)에 따르면 이렇게 장소애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진정성'을 경험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이는 (나)에서 이야기하듯, 상실감을 발생시키는 경향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상실감을 무조건적 소모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합리성으로 무장된 돈의 세계와 반대로 무질서하고 비합리적인 자원 소모를 통해 사라진 내면적 소통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의 모습은 (라)의 몽달 씨를 통해 실현된다. 몽달 씨는 삭막해진 마을에서 이리저리 쫓기며 구타를 당하더라도, 시를 읊으면서 스스로와 더불어 '나'의 마음까지 정화시켜 준다. 비록 시로써 물질적 넉넉함은 얻지 못한 몽달 씨지만, 이러한 무조건적 소모를 통해 자기를 안쓰러워 하는 '나'의 마음까지 회복시켜 준 것이다.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에 따르면, 정서적 유대감을 부여해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것을 '장소애'라고 한다. 모든 인물들은 내적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체인 것이다.</p> <p>제시문 (라)의 '나'는 원미동에 대해 장소애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원미동은 단순한 마을 이름이 아니다. '나'는 원미동 카수 행복사진관 엄 씨부터 원미동 시인 몽달 씨까지 마을 주민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인다. 원미동은 '나'가 살고 있는 추상적인 생활 장소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정서와 유대감을 통해 만들어진 본질적인 장소인 것이다.</p> <p>①제시문 (나)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장소애가 사라져가고 있다. 생산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정서를 몰아내고 유용성과 효용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p> <p>제시문 (라)의 원미동도 장소애가 상실되고 있다. 선옥이 언니는 원미동의 지리리 공상이 지켜워 서울로 가 버렸고, 둘째 언니도 돈을 벌기 위해 도시에서 일을 가리지 않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진정성을 경험하는 장소가 사라지는 무장소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p> <p>이처럼 제시문 (나)에 따르면, 무장소성을 경험하면 진정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유대감을 상실한다. 이를 위해 ②제시문 (나)는 무조건적 소모를 통해 무장소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질서한 소비를 통해 잃어버린 내면성과 인간관계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p> <p>제시문 (라)에서 몽달 씨는 이러한 회복을 보여준다. 어느 날 '나'는 고향에게 구타를 당하던 몽달 씨가 김 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김 반장을 옹호하는 몽달 씨를 이해하게 된다. ③수단-목적 합리성을 지닌 김 반장을 감싸 주는 몽달 씨가 시를 읊는 모습에서 슬픔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조건적 소모를 통해 몽달 씨는 '나'에게 정서적 공감을 형성시켜 무장소성으로 인한 장소애의 상실을 회복시켜 준 것이다.</p>			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시문(가)와 (나)의 내용을 '연계'하여 작성하라는 것이 논제의 요구사항이므로, 서두에서 두 내용의 접점을 미리 만들어 기준점을 만들어두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내용적 연관성을 미리 만들어두는 거죠. 전반적으로 논제의 요구사항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불필요한 내용도 없고요. 분석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표현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독해부분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독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이 단락에서 '무질서한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듯해요. '무조건적 소모'는 '목적중심적 소비'에 대항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요. ③ 개념정립이 확실하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몽달씨에 대한 해석이 약간 부정확해졌어요. 몽달씨가 무질서한 소비를 한다는 것은 몽달씨가 시를 쓰고 들려주는 행동에 대입되고 있습니다.
			구성		☆ 구성 문제 없습니다 .
			표현	☆ 문장도 잘 썼어요~ 비문 없고, 내용전달 잘되고 있습니다.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5	25	17	9	86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고유한 속성들을 몰아내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가)는 인간은 특정 장소에 '장소애'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장소와 개개인의 상대적인 유대성에서 이 정체성이 비롯된다고 보았는데, 문제는 이런 장소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p> <p>이를 (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지나친 생산성을 추구했기에 생긴 현상이라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나친 이윤 추구가 인간을 기계화 시켜 인간 고유의 정서, 도덕, 초월성 등을 몰아내었다 것이다. ❶이로 인하여 정서를 잃어버린 인간은 소외되고, 자연스럽게 장소와의 유대감도 떨어져 무장소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p> <p>그런 의미에서 제시문 (라)의 화자에게 원미동은 장소성이 사라진 무장소성의 차가운 마을이다. 과거의 원미동은 화자에게 장소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었다. 이는 화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원미동 시인', '원미동 멋쟁이' 등등의 별명을 붙이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개인의 특징을 잘 살림과 동시에, 원미동이란 마을의 소속감을 부여했기 때문이다.</p> <p>하지만 이런 강한 유대감은 사람들이 돈을 좇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돈 때문에 몸까지 파는 화자의 둘째 언니의 모습과, 한 때 화자와 함께 어울리며 농도 주고 받았던 형제슈퍼의 김반장이, '원미동 시인'인 몽달이 구타를 당함에도, 모르는 체 그를 외면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인간조차도 이윤 추구를 위한 물건이 된 이 모습들은 (나)의 인간소외를 보여준다.</p> <p>(나)는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서로간의 소통을 되찾으려면, 무조건적인 소모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합리성 아래서, 오로지 생산성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회에 비생산적인 소모로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p> <p>(라)에서 이러한 무조건적인 소모를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원미동 시인' 몽달씨이다. 그는 서로간의 정이 사라진 마을에서 이곳저곳에서 구타를 당해도 여전히 시를 읊조린다. 시를 읊조리는 행동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나, 이런 무조건적인 소모가 몽달 자신과, 그런 그를 바라보는 화자를 소통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위안을 준 것이다.</p>	<p>논 제</p> <p>☆ 논제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명확히 표현하려고 노력한 점이 보입니다.</p>	<p>독 해</p> <p>❶ 제시문(가)와 (나)의 내용을 연계하여 소설을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무척 좋습니다.</p> <p>☆ 전반적으로 논제의 요구사항과 독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소설 분석도 명확하게 되어 있네요. 아주 잘 썼어요.</p>	<p>구 성</p> <p>☆ 구성에 문제 없습니다.</p>	<p>표 현</p> <p>● 지금 이 글에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띄어쓰기가 많이 틀려 있는 상태였어요. 띄어쓰기 유념해서 글 써주길 바래요. 다음에는 표기도 해 줄게요.</p> <p>● '~이었다'는 종결어미는 소설줄거리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로 마무리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글로 보이게 할 거예요.</p>		
	<p>평 가</p>	<p>논제 [40]</p> <p>37</p>	<p>독해 [30]</p> <p>25</p>	<p>구성 [20]</p> <p>15</p>	<p>표현 [10]</p> <p>7</p>	<p>총합 [100]</p> <p>84</p>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침 삭				
<p>②제시문(가)에서는 내적 경험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곳과 구별되는 것을 장소성이라 말한다. 즉 집, 고향과 같이 여러 내적 경험을 통해 긍정적 유대감을 얻는 공간이 진정한 장소라 할 수 있다. ①제시문(라)에서 나에게는 원미동이 진정한 장소라 할 수 있다. 나는 원미동 사람들에게 원미동 시인, 원미동 멋쟁이 등 자신만의 별명을 붙여주고 있다. ③따라서, 나는 원미동에게 보다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p> <p>이어서 제시문(가)에서는 이러한 장소가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진정한 장소성을 가진 장소가 사라지는 무장소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제시문(나)에서는 유용성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이 이러한 무장소성의 확대를 가속화 시킨다고 뒷받침한다. 이는 제시문(라)에서 나의 언니들의 원미동을 떠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언니는 원미동을 지지리 공상이라며 서울로 돈을 벌기위해 떠난다. 또 둘째 언니는 구로동으로 떠나 돈 버는 일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 원미동을 떠나는 것이 무장소성의 확대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가 그것을 가속화 한다고도 할 수 있다.</p> <p>한편 제시문(나)에서는 자본주의의 맹목적인 유용성의 추구가 인간을 우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④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유용성과는 무관한 무질서한 소모를 통한 환몽의 세계만이라 한다. 따라서 제시문(라)의 몽달씨의 시가 환몽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몽달씨의 시를 통해 나가 슬픔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몽달씨의 시가 무조건적인 소모를 통한 환몽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나가 환몽의 세계에서 슬픔을 치유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25자)</p>	<p>논제</p> <p>☆ 논제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전반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p>	<p>독해</p> <p>① 제시문 (가)의 논지를 잘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원미동에 장소애가 높음”도 밝혀주세요.</p>	<p>구성</p> <p>☆ 제시문 (나)의 논지와 (라)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켰습니다.</p>	<p>표현</p> <p>② 제시문 (가)에서는 (띄어 쓰기) => 소설 속 인물이므로 이 답안을 서술하는 학생과 구분하기 위해 a 모두 '나'로 표기합니다.</p> <p>③ 이 경우엔 심표를 쓰지 않습니다. (남용) => 이어진 문장이 2개 이상 되거나, 2개 이상의 항목을 나열할 때 심표를 씁니다.</p> <p>④ 어색한 표현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 환몽의 세계만이라 한다.” 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기 위해선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서술해줘야 합니다. =>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 (명사형 마무리 ex-환몽의 세계를 통한 방법) 뿐이다.</p>		
	<p>평가</p>	<p>논제 [40]</p> <p>37</p>	<p>독해 [30]</p> <p>25</p>	<p>구성 [20]</p> <p>15</p>	<p>표현 [10]</p> <p>7</p>	<p>총합 [100]</p> <p>84</p>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장소애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제시문 (라)의 '나'는 장소애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을사람들의 별명을 짓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별명을 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유대감을 형성했음을 의미하고 특히 별명에 원미동이라는 지명을 포함하는 것은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p> <p>①그러나 제시문 (나)에서는 자본주의가 무장소성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는 오로지 생산성만 추구하기에 정서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의 부재는 장소애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제시문 (라)의 선옥이 언니와 둘째언니는 장소애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쉽게 원미동을 떠나 자본주의를 쫓아서 상경하기 때문이다. 선옥이 언니의 경우 고향을 지리지리 공상 취급을 하며 고향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장사를 하기 위해, 즉 돈을 벌고자 고향을 떠난다. 그리고 둘째언니는 원미동을 버리고 돈을 위해 비윤리적인 일까지 하며 생산성만 추구하는 태도를 보인다.</p> <p>②제시문 (나)에서는 이러한 생산성의 추구가 가져온 권태감을 환몽의 세계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서 환몽의 세계란 무질서한 소비를 위해 만들어지는 황홀경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말한다. 그 예시로 제시문 (라)에서는 시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라)에서 몽달 씨와 '나'는 비생산적 소비에 해당하는 시 읽기를 통해 우울감을 극복하고 있다. 몽달 씨는 폭행을 당하고도 시를 읽으며 다 나왔다고 말했으며 '나'는 몽달 씨가 읽어주는 시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곧 정서를 회복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884자)</p>	<p>논제</p> <p>☆ 논제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전반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p>				
	<p>독해</p> <p>☆ 제시문 (가)의 논지를 (라)의 '나'와 잘 연결시켰습니다.</p>				
	<p>구성</p> <p>① 앞 문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부사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1문단에서 (가)와 연계하여 '나'가 장소애를 형성하였다는 것은 잘 분석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나'와 달리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애를 잃고 있다"고 2문단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전문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때 그 원인이 제시문 (나)에서처럼 '자본주의'가 무장소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주면 되겠죠.</p> <p>☆ 글의 구성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good!</p>				
	<p>표현</p> <p>② 큰 문제는 없지만, 역시 앞 문단과 유기적 연결을 위해, 문장 순서만 약간 바꿔주세요.</p> <p>ex) 이러한 생산성의 추구가 가져온 권태감을 제시문 (나)에서는 환몽의 세계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p>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7	25	15	8	85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에 따르면, 개인의 내적 경험이 장소가 갖는 본질을 규정한다. 인간과 장소의 상호작용과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서가 그 장소에 개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p> <p>이에 따르면 제시문 (다)의 '나'는 원미동에 대한 장소애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원미동의 주민들 각각에게 '원미동의 무엇'이라는 식의 별명을 붙이고 그렇게 붙인 별명으로 주민들의 특징을 떠올린다. 이는 원미동 주민들에 대한 '나'의 고유한 애착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원미동이라는 특정 공간에 대하여 '나'가 느끼는 유대감을 파악할 수 있다.</p> <p>또한 제시문 (나)에 따르면, 생산을 합리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본주의 정신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정서가 매몰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인간은 노동이 제공하는 상실감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비효율적 소비의 세계를 의미하는 '환몽의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성품과 공동체와의 관계성을 회복하려 애쓴다.</p> <p>①이에 따르면, 제시문 (다)의 원미동의 '선옥이 언니'가 이모의 옷가게 일을 거들러 서울로 떠나 버린 사건이 그의 연인인 '김 반장'의 정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녀의 이주는 지리리 공장 즉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자본주의적 가치의 쇠퇴와 이에 따라 물질적 유용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시류 아래 일어난 것이고 그로 인해 '김 반장'이 입은 정신적 타격과 정서적 피해는 역시 자본주의가 인간애를 말살시킨다는 (나)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원미동의 '몽달'은 시 짓기에 자신의 정력을 소모한다. 몽달은 외관상 가난한 서민으로 판단되는데, 노동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핍박을 받고 이웃인 김 반장에게 배신까지 당한다. 그런데 '나'와의 대화에서 김 반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끝내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려 애를 쓴다. ②이는 몽달이 현실적으로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 '시 짓기와 피해 합리화'라는 사실상 부조리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며, 몽달이 나름대로 자신만의 환몽의 세계를 형성한 것을 시사한다.</p>	<p>논제</p> <p>☆ 독해력과 분석력이 매우 뛰어난 글이네요. 다만 논제의 요구사항인 '(가)와 (나)를 연계'하라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이나 연속성을 드러낸다면 더욱 좋을 듯하네요.</p>				
	<p>독해</p> <p>① 각 제시문들을 매우 뛰어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분석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네요. 글쓰기 능력이 아주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장의 분석도 매우 훌륭한데, (가)제시문의 '무장소성'과 관련하여 한 문장정도 추가해주면 좋을 듯합니다.</p> <p>②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독해력과 분석력이 아주 훌륭하네요.</p>	<p>구성</p> <p>☆ 구성 문제 없습니다.</p>			
	<p>표현</p> <p>☆ 표현 문제 없습니다.</p>				
	<p>평가</p>	<p>논제 [40]</p> <p>37</p>	<p>독해 [30]</p> <p>30</p>	<p>구성 [20]</p> <p>17</p>	<p>표현 [10]</p> <p>9</p>

논리평면 '작품' 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첨 삭		
<p>제시문 (가)에 따르면 ❶정서중심의 인식이자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곳을 '장소성' 또는 '장소애'라고 한다. 경험을 통해 갖는 장소에 대한 의미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장소들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이다.</p> <p>이에 따르면 제시문 (라)의 '나'는 원미동에 대한 장소애가 높다고 알 수 있다. '나'는 동네 주민들에게 '원미동 카수', '원미동 멧쟁이' 등 다양한 별명을 붙여 마을에 대한 소속을 강조하고 있다. ❷이에 대해 '나'는 마을에 대한 정서적 관심이 있고, 무엇보다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그런데 제시문 (가)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장소성'과 '장소애'에 대한 의미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자원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고, 인간적인 정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장소를 유용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p> <p>제시문 (라)의 '나'의 마을에서도 최근에 '장소애'가 사라지고 있다. 선옥이 언니는 마을을 지지리 공상인 곳이라며 불평을 하다가 서울로 가버렸고, 둘째 언니는 신경을 온통 돈을 버는 일에만 쏟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이 상품화 되고 있어 ❸마을의 고유성이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이렇듯, 제시문 (가)에 따라 장소애가 계속 사라지면 무장소성으로 인해 장소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제시문 (나)에서 말하듯이 인간은 상실감, 우울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❹하지만 (나)에서 비생산적이고 무질서한 소비로 정서적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모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인간의 내면성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p> <p>제시문 (라)에 등장하는 '몽달씨'와 '나'를 통해 함께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몽달씨는 빛에 쫓겨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더라도, 시를 스스로 읊으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회복하고 있다. 물질로써의 이득은 없지만 ❺무조건적 소모를 통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p>			논 제	☆ 어려운 글이었는데 말이야. 잘 했어~! :)	
				독 해	❶ 고유성 얘기해줄 때도 역시나 '정서' 혹은 유대감과 같은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겠어. ❷ 정서를 회복시킨다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지?
			표 현		❸ 얘가 이 문단의 결론이니까, 얘가 첫 문장으로 오고 나머지를 두 번째 문장부터 뒷받침을 붙여주는 게 최고야. 그렇지만, 지금 정도의 구성도 나름 괜찮습니다.
				❶ 문장 표현이 조금 이상하다. 정서를 중심으로 장소를 인식하는 장소 개념을 '장소성'이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지? ❷ 이를 통해 ❸ 무엇을 되돌린다는 거지?	
평 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6	25	15	7	83

논리평면 ‘작품’ 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첨 삭			
<p>제시문 (가)에 따르면 ①인간은 장소를 정서적으로 중요시하고, 이러한 특정한 장소에 장소성과 장소애를 가진다. 제시문 (라)에서 ‘나’는 자신의 이웃들에게 원미동 시인, 원미동 카수니, 원미동 멋쟁이, 원미동 똑똑이라는 별명을 만들어 부른다. 자신이 사는 동네의 이름을 붙여 이웃들의 별명을 짓는 것을 볼 때, ‘나’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는 ‘나’가 원미동에 장소성과 장소애를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p> <p>또한 제시문 (가)에서는 이러한 장소애가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또한 제시문 (나)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사물이, 인간관계는 사물 관계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권태와 우울에 빠지고, 이를 막기 위해 ‘노동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 선욱이 언니는 어려운 집안 상황으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 있는 이모의 옷가게로 간다. 또한 둘째 언니는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다가 공장, 다방에서까지 일하며 돈 버는 일에 집착하다가 26살에 대팩집을 열었다. 이는 모두 수단-목적 합리성에 따른 생산적 소비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한 장소 상실 현상, 즉 무장소성이라고 할 수 있다.</p> <p>마지막으로, 제시문 (가)에 나타난 무장소성은 제시문 (나)의 비생산적, 무질서적 소비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운용 원리인 수단-목적 합리성을 통한 생산적 소비에서 벗어나, 이로 인해 상실된 내면성 및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무조건적 소모와 무질서적 소비를 시도할 때, 우리는 유용성으로부터 떨어진 환몽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제시문 (라)에서 몽달 씨는 빨간 셔츠를 입은 사내에게 밝혀 얼굴이 코피로 뒤덮이게 된다. ③이러한 일을 겪을 때 몽달은 이웃 김 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과 유대감이 없는 사회에서 그에게 외면받는다. ④그를 위로해준 이는 ‘나’였고, 몽달은 시를 읽는 비생산적, 무소모적 소비를 통해 환몽의 세계를 경험한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본인의 내면성을 회복하게 되고, 이는 그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공감하며 슬퍼하고 분노한 ‘나’의 내면성 회복에도 기여한 것이다.</p>	<p>논 제</p> <p>☆ 규칙에 대한 적응만 되면, 곧바로 수석을 달릴 재능이 보이는 글. 하지만 아직은 논술 개념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한 상태!</p>				
	<p>독 해</p> <p>① 인간이 보편적으로 정서 중심으로 장소를 파악한다는 논지는 (가)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정서를 중심으로 장소를 이해하는 장소 개념이 장소애, 장소성이라는 정도로만 말하는 게 좋겠다.</p> <p>② ‘또한’으로만 연결되기에는 (가)와 (나)의 논지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될 여지가 많아요. (나)에 나타난 내용이 (가)의 무장소성 증가 현상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제시되면 가장 좋을 거야.</p> <p>④ 몽달 씨의 내면이 회복되는 장면은 사실 잘 안 나오고, ‘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면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온다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p>				
	<p>구 성</p> <p>☆ 기준과 적용을 한 문단에 몰아넣었구나. 이렇게 하려면, 사실 ‘적용’의 핵심인 ‘결론 주장’이 문단의 핵심이 되거든. 즉 그 결론 문장이 문단의 첫 문장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한 문단으로 몰아서 쓰면 문단 구성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 따로 따로 한 문단씩 배분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문단을 많이 나눈다고 크게 손해 보는 건 없거든.</p> <p>⑥ 애는 왜 들어갔지? 애는 지금 설정된 ‘비생산적 소비를 통해 정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론 명제가 관심을 두는 사실이 아닌데? 즉, 현재 이 문장은 소전제가 될 수 없는 내용이야.</p>				
	<p>표 현</p> <p>☆ 이 정도면 유망주의 글썃씨!</p>				
평가	논제 [40] 35	독해 [30] 24	구성 [20] 14	표현 [10] 8	총합 [100] 81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①(가)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정서를 통해 장소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정서를 형성함으로써 장소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는 장소성을 지닌다. 그리고 장소성에 대해 정서적 유대, 즉 장소애를 지닌다.</p> <p>제시문 (라)의 ‘나’는 원미동에 대해 장소애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원미동 멋쟁이’, ‘원미동 똑똑이’, ‘원미동 똑똑이’ 등 별명을 붙여서 그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나’가 마을을 보다 특별한 장소로 인식하고 이에 정서적인 유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p> <p>또한 제시문 (가)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는 무장소성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상품화된 장소들이 등장하고 장소들이 서로 비슷한 특성을 띠게 되면서 장소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②</p> <p>제시문 (라)에서 원미동은 이러한 무장소성의 특성을 보인다. 선옥이 언니는 ③얼굴이 아주 곱기로 유명한데 궁핍한 가정형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서울의 이모네로 떠난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는 선옥이 언니는 장소를 ④그만의 가치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상품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p>마지막으로 제시문 (나)에 따르면 자본주의로 인한 정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생산적 소비를 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적 소비만을 요구하고 이는 정서를 몰아내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무조건적 소모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이에 따르면 잉여를 소비할 때 목적 없이 무질서하게 소비해야 한다.</p> <p>제시문 (라)에서 몽달 씨를 통해 이러한 극복이 실현된다. 몽달 씨는 힘든 상황에서 시를 읊고 있다. ⑥몽달 씨가 처한 상황에서는 비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는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p>				논제	☆ 기본기는 잘 지키고 있는 글이야.	
					독해	<p>① 사람들이 보편적인 차원에서 정서를 갖고 장소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정서를 중심으로 장소를 이해하는 장소애라는 개념이 있다고 소개해 주는 정도가 맞아요.</p> <p>② 무장소성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나)에서 보충 설명을 가져올 수 있을 거야. :)</p> <p>③ 얼굴이 이쁜 건 별로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 정서를 중심으로 장소를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만 짚어내면 되는 맥락이니까 말이야~</p> <p>④ 정서적 가치, 공동체 속의 유대감과 같은 구체적인 단어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자.</p> <p>⑤ 몽달 씨의 시를 통해 정서적 회복을 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린 ‘나’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해요.</p>
				구성		⑤ 이 문장은 꼭 필요하진 않은 보충설명으로 보여요.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어요.
				표현	☆ 표현력도 좋은 편입니다.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5	23	15	8	81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는 정서를 통해 장소를 인식하여 특정한 곳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장소애라고 보았다. 이는 자신만의 여러 경험을 통해 주관적 가치를 특정 장소에 부여하여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p> <p>①제시문 (라)에서 ‘나’는 원미동에 대한 애착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원미동 카수, 원미동 멋쟁이, 원미동 시인 등으로 애칭을 부여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원미동에 대한 ‘나’의 관심을 대변하는 증거이다.</p> <p>그러나 제시문 (가)에선 요즘 장소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생산적 소비가 증가된 것이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제시문 (나)에선 유용적인 것에만 투자한 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보았다.</p> <p>②제시문 (라)에서 ‘나’가 애착을 품고 있는 원미동을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선욱이 언니가 이모의 옷가게에 기여한다는 것과 큰언니도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자본주의의 유용성에만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③점점 원미동도 자본주의화가 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제시문 (가)에선 장소성이 점점 사라짐에 따라 진정성의 상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았고, 제시문 (나)는 이는 상실감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제시문 (나)에서는 이를 무조건적 소모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형화된 세계의 생산적 소비를 무질서하고 비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내면 정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제시문 (라)에선 몽달씨의 행동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몽달 씨는 이 마을에서 구타를 당하지만, 스스로의 시를 통해 자신의 우울을 극복하고 ‘나’의 마음까지 정화시키고 있다. 이는 물질적 가치를 지니진 않지만 무조건적 소모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정화한 것이다.</p>				논제	☆ 매우 부드럽고 유기적인 사실추론의 글입니다. 훌륭해요.
				독해	<p>① 애착이 많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장소애’라는 핵심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게 좋겠지?</p> <p>② 여기서도 기준에 제시된 개념과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무장소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면 더 좋았을 거야.</p> <p>③ 여기서도 ‘장소애’, ‘무장소성’과 같은 기준의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써주도록 하자.</p>
				구성	☆ 물 흐르는 듯한 전개 실력.. :) 이미 노련미까지 느껴집니다. 짹.
				표현	☆ 표현 실력도 매우 우수합니다.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6	25	16	8	85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에서 장소애란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어떤 정한 장소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p> <p>이를 통해 볼 때 (라)의 '나'는 원미동에 대한 장소애가 높다. '나'는 원미동 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각각 별칭을 붙여주었다. 대표적인 예로 '원미동 시인', '원미동 멋쟁이'등을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마을을 공동체에 대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장소애가 높음을 알 수 있다.</p> <p>하지만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이러한 장소성은 현대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제시문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인 현대사회에서 성장을 위해 ❶정서등을 몰아냄으로써 무장소성이 확대되고 있다.</p> <p>제시문 (라)에서도 이런 무장소성이 확대되고 있다. 선옥이 언니는 집에 있는 것이 지겨워 서울로 가 버렸고 둘째 언니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 이는 더 이상 원미동을 장소애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자원으로만 보고 ❷있다.</p> <p>제시문 (가)에서는 장소애가 사라짐으로써 진정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제시문 (나)에서 언급하는 정서를 몰아냄으로써 생기는 우울, 즉 상실감과 관련이 있다. ❸하지만 (나)에서 이러한 상실감을 회복시켜주는 수단으로써 무조건적 소모를 주장한다. 비생산적이고 무질서한 소비를 통해 상처받은 내면과 인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p> <p>제시문 (라)에서 몽달 씨가 무조건적 소모를 실현시킨다. 몽달 씨는 '나'에게 시를 읊어주는데, 시를 읊음으로써 '나'의 정서를 정화시킬 뿐만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달랠다. 무조건적 소모 활동 중 하나인 시를 읽으며 현실로 인한 상실감을 회복시켜준 것이다.</p>	논제	☆ 무조건 합격 수준의 깔끔함!	독해	☆ 매우 잘 썼어요 :) 뿌듯뿌듯.	구성	☆ 보내준 문단 구성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쌤이 조금 바꿨어.
	❷ 해석을 쓰는 부분이니, 앞서 작성한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 '있다'보다는 '있다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의 표현이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러워.					
	❸ 이 문장이 이론의 핵심이지? 지금도 관점은 편이야. 두 개의 제시문을 통해서 핵심을 소개하는 중이니 이 자리에 핵심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이론의 결론(핵심)이 너무 늦게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표현	❶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등'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의 쓰임과 비슷한 것으로 의존 명사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은 앞말에 붙여 적을 수 있는 접미사로는 쓰이지 않지만 '-들'은 접미사로 씁니다. (국립국어원 답변)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7	26	16	8	87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에 따르면 인간의 정서적 가치가 내포된 장소의 정체성이 점차 훼손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장소의 의미가 효용성의 창출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제시문 (나)는 말한다. 이는 대상에 대한 효용성과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것 외의 것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자본주의의 부작용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p> <p>①제시문 (라)의 ‘나’가 살고 있는 원미동의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용성의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선옥이 언니는 원미동을 떠나 옷가게를 하는 이모를 도우려 상경했으며, ‘나’의 둘째 언니도 돈을 벌기 위해 원미동이 아닌 구로동으로 이사하여 대폿집을 열었다. ②이런 모습들은 원미동의 의미가 긍정적 유대감을 심어주는 장소애의 대상이 아닌 그저 효용성을 창출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p> <p>③다음으로 제시문 (가)에서는 장소가 효용성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선 장소의 진정성을 경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제시문 (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우울과 권태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유대감이나 도덕과 같은 장소의 진정성을 찾기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삶의 활력을 느끼기보다는 우울과 권태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제시문 (라)의 원미동은 진정성을 경험하기 힘든 장소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나’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김반장은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몽달씨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도움 요청을 외면하였고, ④이 현장을 목격한 ‘나’는 관찰하면서 시를 읊어주는 몽달씨를 옆에두고 울고 있다. 이는 진정성을 경험하기 힘들어진 원미동에서 김반장의 유대감과 도덕성이 파괴된 것이며 진정성을 상실해버린 마을의 현장을 목격한 ‘나’가 우울감을 겪고 있는 것이다.</p>	논제	② 지금은 가까스로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논제에서 요구한 건 ‘나에게 원미동이 갖는 의미’야. 그러니 ‘나’에 초점을 맞춰서 부연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나’랑 상관 없으면 안 되니까.			
	독해	④ 몽달 씨의 시를 들은 내가 겪는 감정을 우울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우울감이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설정한 이론이 우울감으로 귀결되어 있으니까. 형식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맞아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 이걸 우울감 회복으로 놓을 수 있지 않나? 응 맞아, 그렇게 볼 수 있어. 하지만 문학이잖아. 어떻게 볼지는 해석 틀이 결정하는 거야. 아주 억지가 아니라면. 지금은 억지인가? 아니야,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구성	① ‘이에 따르면, 따라서, 그러므로’와 같은 결론 지시사가 필요해요. (라)가 자체적으로 자본주의 어찌구라고 말할 순 없거든. (가)와 (나)로 해석한 결과를 말하는 거잖아. ③ 지금도 괜찮아. 제시문 2개를 갖고 쓰는 거니까, 핵심을 반드시 한 문장 안에 다 써야만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한 문장 안에 넣는 게 좋지. 이를 위해선, 제시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핵심 메시지를 첫 문장에 압축해서 주고, 이를 상술하는 과정에서 각 제시문의 논지를 가져오면 돼. 그게 최고급이야.			
	표현	☆ 표현력 괜찮습니다. :)			
평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6	26	16	8	86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침 삭			
<p>제시문 (가)에 따르면 정서적 가치를 통해서 개인의 정서적 가치를 통해서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며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장소애라고 한다.</p> <p>① 제시문 (라)에 따르면 '나'는 원미동에 대한 장소애가 높다. 이웃들을 원미동과 관련된 별명을 부르며, 주민의 생활까지 알고 있다. 이를 통해서 '나'가 원미동에 대해서 ② 특별하게 여기는 장소애가 높다는 점을 볼 수 있다.</p> <p>제시문 (가)에 따르면 자본주의로 인하여 유용성에만 집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현대에는 장소성이 사라진다. 제시문 (나)는 자본주의 성장이 인간의 고유 속성인 정서를 몰아낸다고 본다. 이는 장소애가 사라지는 무장소성을 초래한다.</p> <p>③ 제시문 (라)에 따르면 '나'가 좋아하는 원미동도 무장소성을 겪게 된다. 선육이 언니는 원미동을 '지리지 공상'으로 여기며 이모의 옷 가게를 돕는다며 서울로 떠났으며, 둘째 언니도 돈을 벌기는 일에만 몰두하며 원미동을 이탈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미동의 자본주의화를 볼 수 있으며, 장소가 유용성을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p>④ 제시문 (가)에 따르면 장소애를 잃어버리면서 상실감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제시문 (나)는 상실감을 무질서한 소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상실감 회복마저 유용성의 소수단으로 해결한다는 점이다.</p> <p>⑤ 제시문 (라)에서 몽달 씨로 통해서 극복한다. 몽달씨는 마을을 돌아다니가 봉변을 당하여도 곳곳이 '나'는 몽달씨를 보며 안쓰러움을 느낀다. 몽달씨는 시를 낭송하며 본인과 '나'의 상실감까지 치유해준다. 이는 시를 무질서한 소비를 볼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소비를 통한 극복의 예시를 보여준다.</p>	논 제	<p>☆ 구성을 위한 표현들을 조금만 다듬으면 안정된 글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있는 그대로만 보면, 각 논증의 결론 부분이 잘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워요.</p>			
	독 해	<p>① 제시문 (라)에 따르면, '나'는 이웃들에게 원미동과 관련된 별명을 지어줬을 뿐이야. 이 사실이 '장소애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건, (라)에 따른 게 아니고, (가)에 따른 거야. 그러니 (라)에 따르면 이라고 하지 말고, '이에 따르면'이라고 해야지. 여기서 '이'는 제시문 (가)인 거구~</p> <p>② 지금의 해석도 괜찮긴 한데, '해석' 부분은 기존 제시문의 상술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는 게 좋아. '정서적 유대, 애착'이라는 단어로 연결해 짚으면 더 부드러웠을 거야.</p> <p>③ 여기도 '이에 따르면'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원미동이 무장소성을 겪는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원미동의 무장소성이 높아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하지, '온도를 경험한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 :)</p>			
	구 성	<p>④ 이 문단의 핵심을 첫 문장 하나에 압축해서 넣어보자. 지금은 정리가 안된 문단이에요. 현재는 '그러나' 뒤에 있는 '무질서한 소비로 극복 가능'이 중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내용이 첫 문장으로 와야 해. 그래야 혼동이 없어.</p>			
	표 현	<p>⑤ 주어는? '나'가 들어가야 하겠지?</p>			
평 가	논제 [40] 34	독해 [30] 22	구성 [20] 14	표현 [10] 7	총합 [100] 77

논리평면 ‘작품’ 침삭

건국 대학교

2017 학년도

기출

인문

2 번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라]의 ‘나’에게 ‘원미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시오. (801~1,000자)

작 품		침 삭				
<p>① [제시문 <가>]는 인간이 특정 장소에 정서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장소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이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장소에 대해 긍정적인 유대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의 '나'는 원미동에 대해 장소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원미동에 거주하는 주변인들을 '원미동 시인', '원미동 카수'와 같은 마을의 이름이 포함된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나'는 원미동을 타 공간과 구분되는 특별한 장소로 인식하며, 원미동이 '나'에게 주변과 관계를 맺는 근원적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p> <p>① [한편, 제시문 <가>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장소애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점차 장소를 사물로 대하게 되는데, 이는 '무장소성의 증가'로도 표현된다. 장소에 대해 진정성 있는 감정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가 거주하는 원미동은 장소애가 저하되는 현상을 겪는다. 선옥이 언니는 가족의 '지리지 공상'이 지켜워 서울로 올라갔으며, 둘째 언니 역시 금전의 취득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는 모두 유용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성격에 의해 장소들이 상품화 되어가는 모습이다.]</p> <p>① [현대 사회가 감소시키는 정서적 유대감은 장소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시문 <나>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 간의 진정한 정서적 관계 역시 감소하게 된다. 유용성과 효용성만이 강조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계산적인 관계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다. ② 제시문 <라>의 김 반장은 계산적 관계의 특징을 적잖게 드러내고 있다. 평소 '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던 김 반장은 선옥이 언니가 마을에서 떠나자, 이전과 대조되는 통명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사회의 구조에 의해 하나의 사물이 되어버린 인간의 단편을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p>	논 제	☆ 좋아, 잘 했어. 새롭게 시도한 구성과 독해에는 약간 씩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부드러웠어. 노련미까지 보일랑말랑 :)				
	독 해	② 새로운 독해 분석 부분이구나. 좋은 도전을 했네! 그런데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 지금 이론 명제로 나온 건, '현대 사회에서 인간간 정서적 관계가 감소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밑줄 친 부분에서 연결된 소전제는 김 반장이 '선옥이 떠나자 통명스럽게 됐다'는 거야. 선옥이 언니가 떠나는 게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적 면모를 강화하는 거라면, 그걸 좀 더 부연해 줘야 할 텐데, 지금 쓴 것만 보면, 실연의 아픔 때문에 사람이 통명스럽게 변해버린 것 같아. 조금 더 의도에 맞게 부연해 보자.				
	구 성	① 내용은 좋네! 다만, 이 문단의 핵심이 뭐야? 제시문 (가)에서 뽑아낸 이론적 명제야? 아니면 이를 (라)에 적용한 결론이야? 하나만 뽑으려면 뭘 하겠어? 핵심이 둘이 될 순 없거든. 뭐든, 하나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뒷받침이 되어야 해. 그러면 어쨌든 그 핵심이 첫 문장으로 오고, 이를 중심으로 뒷받침을 세워야 하지. 지금의 구조로서는 (가)의 이론 명제가 핵으로 온 모양새인데, 논제가 요구한 건 '나'에게 원미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 대답하라는 거지? 그럼 이게 핵심이 되는 게 맞지. 즉, 굳이 핵심을 하나 정하라고 하면, '적용의 핵심'을 문단의 핵심으로 뽑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문단의 첫 문장은 뭐가 나와야 할까? "(라)의 '나'는 원미동에 대해 상당한 장소애를 갖고 있다."가 나와야겠지. 그 다음엔? 뭐부터 전개시킬까? 굳이 정해주자면, [결론-기준(대전제)-사실(소전제)-해석]으로 쓰거나, [결론-사실(소전제)-기준(대전제)-해석]으로 쓰는 게 부드러워. 하지만 이게 좀 복잡하고, 이렇게까지 한 덩어리로 써야만 하는 경우는 잘 없어. 그래서 두 개로 쪼개서 쓰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나머지 문단도 마찬가지로.				
	표 현	☆ 표현력 굉장히 좋네.				
평 가	논제 [40]	독해 [30]	구성 [20]	표현 [10]	총합 [100]	
	36	24	14	9	83	